

<무용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이번 무용 창작산실 시범 공연 지원사업은 총 89건이 접수되었고, 대극장 42건 소극장 47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는 1차 서면심의 2차 인터뷰 심의로 진행하였으며, 서류심의에서는 인터뷰대상 작품을 선정하였고, 인터뷰 심의에서는 단체에서 제출한 영상을 함께 보고 지원서류를 근거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심의 기준은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공연작품의 예술성 40%, 공연단체의 역량 30%를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예술단체의 기존의 활동 경력과 업적보다는 최근의 활동역량과 예술성에 더 집중하였다. 신청 사업 중 많은 작품이 융복합적 경향을 띄었는데 한국무용이나 발레는 현대무용적인 것을 대폭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대무용은 미술과 건축 영상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가 즉흥적인 한 번의 파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시 복기 가능한 정리된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보았다. 신청 작품 중에는 신선하고 재기 있는 작품들도 많았는데, 실연 가능성과 재연 가능성을 함께 보았다.

대극장 부분의 경우, 작품의 구성 및 실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체 인터뷰시에 안무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한 질의를 집중 진행하였다. 평이한 주제와 방법론보다는 독창적이고 안무가의 뚜렷한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높이 평가하였다. 소극장 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안무가들의 신청이 많아 실험적인 작품이 눈에 많이 띄었다. 이전 작업과의 연관성 및 공연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엄밀히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장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실험과 예술적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 좋아 보였다.

많은 작품들이 참신한 방법론과 의욕에 찬 미학적 제시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5년 창작산실 사업을 통해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